



가톨릭마산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4년 1월 21일
제2601호



부르심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요나 3,1-5.10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제 2 독 서 1코린 7,29-3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 음 마르 1,14-20
- 영 성 체 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남성동본당 주임

연중 제3주일(마르 1,14-20)

오늘 1독서에 보면 요나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낚선 땅 니네베로 가서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라고 외칩니다. 만일 이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이 성당뿐 아니라 이 지역이 다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냐?’ 하고 외면하시겠지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오는 니네베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낚선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 단식을 선포하고는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징표를 보여주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니네베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회개의 외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2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바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가 어린 나이에 봉쇄수도원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한 후 종신서원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수련장 수녀로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일찍 수도원의 중책을 맡은 것을 시샘한 선배 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중에 한 선배 수녀가 데레사에게 ‘어린 나이에 벌써 수련장을 맡아. 누가 누구를 수련한다는 거야. 너나 먼저 똑바로 살아.’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평소 데레사 수녀의 성덕을 잘 알고 있었던 동기 수녀가 이 상황에서 데레사 수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선배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저는 더욱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순간에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쉽게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무엇에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지 살펴보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더 큰 은총을 위해 하느님 자리를 기꺼이 비워두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더 큰 은총을 위해 하느님 자리를 기꺼이 비워두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
신안동본당 보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평화를 빕니다!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월남동본당 출신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선배 신부님들과 부모님, 동료 형제들, 수녀님들 그리고 노심초사하며 묵묵히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월남동본당 공동체와 마산교구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 아이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 잠깐이라도 좋으니 하느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꼬마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결국, 그 꼬마 아이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가 걸던 어두운 밤길이 빛이 가득한 길로 변합니다. 이제 그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사제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어두운 밤길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이 가득한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택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며 보여주신 모습들을 저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사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월 10일 오후 2시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1명의 부제를 사제로, 2명의 신학생과 1명의 삼위일체수도회 수사를 부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서품식에 함께한 교구 사제, 수도자, 신자들은 새 사제와 부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박사 학위 취득

2020년 독일에 유학을 떠났던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가 지난 2023년 11월 튀빙엔 에버하르트 카를대학교 대학원에서 '교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논문명: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세례 신학에 비추어 본 고대 후기 로마인들의 그리스도교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2015년 2월 부산가톨릭대학교 졸업
2018년 12월 그라츠 칼 프란츠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2019년 1월 8일 부제수품
2020년 1월 7일 사제수품
2020년 1월 7일~2024년 1월 유학(독일)
2020. 11. 튀빙엔 에버하르트 카를대학교 대학원 입학
2023. 11. 튀빙엔 에버하르트 카를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민창홍 시집

도도새를 생각하는 밤

마산교구가톨릭문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창홍(사도요한)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도도새를 생각하는 밤』(창연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지난해 성지여고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시인은 “마스크를 쓰면서 교장 임기를 시작하여 마스크를 벗으며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서른여섯 해 동안 집착해 온, 교직의 정산서 앞에서 감성보다는 이성, 허무와 절제를 삭혀주었다. 가슴 언저리에 든 멍을 풀며 또 다른 마스크를 벗는 중이다.”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시간을 마감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써 왔던 <마스크> 연작시 15편을 실었다. 인간의 욕심과 환경 파괴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그로 인하여 겪는 삶의 고통을 생명 윤리 차원에서 그려내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 속의 체험과 관찰한 내용이 형상화된 작품 44편이 함께 실려 있다. 작품 곳곳에 가톨릭 신앙인의 삶이 녹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서정과 사회적 성찰이 맞물린 형태를 보여주어 삶의 내력과 맞닿은 시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창홍 시인은 마산교구가톨릭문인회 회장과 완월동본당 사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은이: 민창홍
- 출판사: 창연출판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해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파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요한 17,20-23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대로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교회의 슈망 네프 공동체(Chemin Neuf Community: CCN)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2016년 국외에서 시작된 지하드파의 공격이 국내로 확대된 이래로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무장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르키나파소의 그리스도인, 무슬림, 토속 종교 신자들 사이에 연대의 기운이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르키나파소-니제르 주교회의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 대화 위원회’는 다른 종교와 연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종교 간 그리고 인종 간 대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툼의 본질이 무엇이고 얼마나 오래가든 화해의 때는 오기 마련이다.”라는 모시족의 속담처럼, 부르키나파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분열을 가로질러 일치의 길을 가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체험에서(요한 3,16 참조)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을 찾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냅니다(요한 13,35 참조). 올해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성구인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5절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드러나는 전통적인 유대교 가르침 또한 올해 주제 성구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라는 물음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점차 특정 지파에만 사랑의 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그 자체로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교사가 예상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써 답하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국제 관계의 불균형, 서구 열강이나 다른 외부 세력이 강제하는 구조에 순응하여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묻게 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름에 개의치 않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므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거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교회들 사이의 상호 이해 부족과 서로에 대한 의구심은 교회 일치를 위한 여러 교회의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일치 운동이 교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을지 모른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교회들 사이의 경쟁의식은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확신과 희망으로 교회 일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때때로 가치관 상실과 인류애의 공동 인식을 상실, 공동선과 정직, 청렴, 애국심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방해를 받았고, 영적인 메마름과 손쉬운 이득의 추구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은 사랑을 기초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때로는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 입장이 갈려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끊임없는 불화가 자신들을 해치고 있음을 깨닫고, 치유의 기름과 포도주를 서로의 상처에 부어 줄 수 있도록 교회 일치를 위한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때때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여관을 교회의 표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 사마리아인이 다친 이를 여관으로 데려갔던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세상의 상처 입고 곤궁한 이들에게 봉사할 사명이 있음을 되새기며, 이 사명이 당신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 곧, 일치를 향한 길임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한국천주교회 이용훈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의식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 한국구세군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시홍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교구/본당

전국 관리국장회의

일시: 1월 24일(수)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회의

일시: 1월 25일(목)

장소: CBCK

52차 창세기연수

일시: 1월 25일(목)~28일(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010·3213·4012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월 기도모임

일시: 1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

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신년하례미사

일시: 1월 25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예수회센터 불학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내용: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송봉모 신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홍기령 교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김관희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욥기 강독-주원준 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및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23년 11월 13일(월)~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세계병자의날 치유대피정

일시: 2월 3일(토) 10:00~17:30

장소: 월막 피정의 집(성령쇄신봉사회관)

초청강사: 한연홍 신부(수원교구), 두현자 올리안나

문의: 대구대교구 성령기도회 010·9045·0191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 2월 14일~16일/ 2월 23일~25일/ 2월 27일~

29일/ 3월 1일~4일(추)/ 3월 8일~10일/ 3월 13일

~16일(추)/ 3월 18일~20일/ 3월 23일~26일(추)

※ 2월 한라산 눈꽃산행 일정 포함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차-3월 21일(목)~23일(토)

2차-4월 10일(수)~12일(금)

3차-5월 6일(월)~8일(수)

4차-6월 6일(목)~8일(토)

5차-9월 25일(수)~27일(금)

6차-10월 10일(목)~12일(토)

7차-11월 25일(월)~27일(수)

장소: 왜관 피정의집

연화리 피정의집(3차, 6차)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예금주-(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55차 선택 주말 안내

선택 주말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2월 23일(금)~25일(주일)까지 2박 3일

장소: 마산 성혈 영성의 집(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로 11)

대상: 20~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신청: 2월 4일(주일)까지 QR코드로 접수

참가비: 12만 원

계좌: 경남은행 593-07-0022836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마산선택 (카카오톡에서 “마산선택” 검색)

▶신청 접수 마감 후 참가 시간 및 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0~30대 미혼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청소 1명(출·퇴근)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사제 추천서

마감: 1월 28일(주일) 16:00 이전(방문, 우편, E-mail/우편 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E-mail: cecomasan@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월 22일(월) 19:00	중앙동성당	너희는 먼저 하늘의 나라를 구하라	고영민 안드레아(서울대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	010·5247·9900
진주지구	1월 22일(월) 19:00	신안동성당	성령 하느님의 손길	정광수 프란치스코(진주지구 성령기도회 봉사자)	-	010·3846·198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p>천차만차</p> <p>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p> <p>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p> <p>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p> <p>010-6299-1137</p> 	 <p>지금 여기 사진관</p> <p>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p> <p>위치: 창원 용지호수앞</p>	<p>대성의전 경남장모컨설팅</p> <p>산소 이장·무연고 처리</p> <p>010-4848-9944</p> <p>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p> <p>김종운(클레멘스)</p>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p> <p>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p> <p>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p> <p>북해도 나가사키 이키타 3박 4일 115만원</p> <p>마르크 투어 010-4239-1929</p>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국내 성지순례 모집</p> <p>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p> <p>한국성지67 부산-마산교구 3일-2월 16일(금)~18일(주일)</p> <p>■해외 성지순례 모집</p> <p>그리스-티기 12일-2월 27일(화)~3월 9일(토)</p> <p>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마산 성바오로서원</p> <p>성바오로</p> <p>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p> <p>문의: 055·248·3089/ 010·9753·3089</p>	<p>트라피스트 수녀원</p> <p>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p> <p>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p> <p>·수녀원 직영 쇼핑몰</p> <p>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p> <p>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삶 속의 순례길

윤선희 드보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무슨 대단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구보에서 ‘한티 가는 길’이라는 순례길 걷기 광고를 보고 얼른 신청했던 건, 인원이 금방 차버릴까 걱정되어서였다. 그즈음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자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그간 핑계를 대며 마음을 눌러왔지만 어찌면 내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씩 바닥까지 닿을 듯한 우울한 상태가 되면 벗어나기 힘들었다. 아무래도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절망이 덮쳤다. 바깥에서 보는 내가 어떤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해 망쳐버린 여러 일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와 보니 스스로를 인정하고 화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 해도 한티 순례길이 이런 마음을 해소할 거란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것 같았다.

순례길은 거의가 비탈이 심한 산길이었다. 등산화와 스틱이 아니라면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였다. 오기 전 짐을 싸면서 많은 짐에 넉터리를 내며 스틱을 두고 왔던 나는, 두 발로 용을 쓰며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했다. 앞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며 그의 발뒤꿈치에 집중했다.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할까 봐 주위를 둘러보거나 다른 생각을 할 새가 없었다. 첫날 저녁식사 후에 강의를 들었다. 산티아고 카미노(순례길)의 첫 한국인 사제로, 5년간 라바날 수도원에서 순례자들을 만났던 인영균 신부님의 강의였다. 산티아고나 한티 순례의 목적은 무덤을 참배하는 것이며, 순례의 시작은 집에서 가방을 메고 나오는 순간부터라 했다. 그러나 이런 순례는 다 가짜이며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슨 엉뚱한 말인가 했는데, 진짜 순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당한 말이다. 3일을 연달아 걷는 여정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겠는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일탈하는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길을 안내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봉사자들과 함께 걷다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숙소가 제공되는,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사서 하는 고생일 뿐이다. 정말 그것뿐일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일기에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썼다. 그렇게 쓰고 나니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산길을 걸을 땀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치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데 집중해야 했다. 삶의 카미노(순례길)로 돌아와서도 나는 단순해져야 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다. 그분께 다가갈수록 삶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그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행복하다고 말해 본다. 그러면 점점 몸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 나가는 것 같다. 새삼 말의 힘을 느낀다. 나는 이제 행복한 순례를 시작할 것이다. 새해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



성경, 세상과 인간을 비추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큰 뱀들, 소위 고대 신화 속의 용 또는 레비아탄에 비길 수 있는 존재들 또한 있었습니다(창세 1,21).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창세 1,25).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일련의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 및 지혜 전통에 속하는 이야기들은 그 큰 뱀들을 적대하시고 패퇴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사 27,1; 51,9; 예제 29,3; 32,2; 욥 7,12; 시편 74,13). 사실,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성경 내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 ‘참으로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늘과 땅의 질서를 세우십니다(창세 2,1). 이어서 거룩한 시간을 세우시며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창세 2,2-4). 이렇듯, 아무 죄 없이, 은총 속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뱀이라는 유혹자의 손에 이끌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창세 3장).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대적할 존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인간은 은총을 누리면서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지고선至高善이신 분께서 악의 실존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눔으로써 명약관화하게 해결되는 의문입니까? 아니면 설마 몇몇 무신론자들의 푸념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상대로 무력하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 모순점들에 대해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은이라 하겠습니까.

하나 굳이 그 열매를 따 먹지 않은 이에게도 자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순점들을 전하는 성경의 설화적 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적대시되는 일들(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부모 자식 간에 반목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며,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타인을 상대로 창세기의 아담-하와이면서 동시에 뱀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네 현실에 대한 상징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하나님 사랑의 일원론一元論을 비루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루시는 강생의 신비에 따라 성경은 그분께서 실제 살로 취하신 인간의 얼굴과 그 가운데 천막을 세우신 세상(요한 1,14)에 대한 대조 그림을 내놓음으로써 자기 본분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 대조 그림과 우리 현실 사이의 ‘연속성 가운데 비연속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1년간, 1달에 한 번 쓰일 이 칼럼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 조명하는 인간 군상의 민낯과 그 민낯을 마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할 것입니다. 그로써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immanent), 우리와 다르신(transcendent) 하나님을 지향하기를 요청받는 존재로 조명될 것입니다.

‘가톨릭마산(교구보)’ 1월 21일 자부터 매월 셋째 주에 조우현 신부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게재됩니다.